

검찰·공수처, 현직 대통령 '이중 출석 요구'

尹, 수사·재판 전략 연계 고려해 선택할 듯 소환 요구 모두 불응 가능성도 배제 못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가운데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 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

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팽'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진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실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향후



내란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단장 등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할 지를 따져본 뒤 출석 기관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중요임무 중

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1일 검찰의 1차 출석요구에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18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계엄군 국회 투입...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관련 구속영장 발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

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은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I 병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앞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중장)도 이날 구속됐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참모를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

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날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의) 의견 정즉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김전 장관의 육사 9기수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연합뉴스

검찰 특수본-경찰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피의자 소환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조사 일정 및 장소	1차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11일 통보·출석 불응), 16일 2차 소환 관련 통보	12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16일 통보)	
주요 혐의 등 출석요구서 내용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 통보		
전달 방식	대통령실로 서울중앙지검 출석공문 전달 및 우편출석요구서 송부 (송달 완료 사실 확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한남 관저 인편 전달 시도 및 불발, 총무비서관실에 특급 등기 통해 출석요구서 발송	
조사 불응 이유 소환 불응 시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1차) 출석요구 불응 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 구인		
각 기관 소환 특징	경호·보안, 현주거지 등 고려해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판단. 헌정 사상 6번째 대통령 검찰 소환·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로 사건 이첩,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방향.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 검토 해석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정동 757-34 힐스테이트 1단지(763세대) 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 275㎡ 3층 건물
급매 11억 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 704-13, 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 591㎡(평수 추가 가능)
2층 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 등 최적
급매 3.3당 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 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 추가 또는 분할도 가능) 급급매 30억
***국내 최대 동굴관광지(예정) 입구 투자 가치도 최고

급히 구합니다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 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 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